

캄보디아 태국국경과의 전쟁 소식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지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24:14).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뿌레아 위히어 북쪽에는 뿌레아 위히어 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태국과 접경해 있고, 프랑스 식민지 지배 이후에 캄보디아 땅으로 속해 있던 곳입니다. 처음에 발단은 이 사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계엄령 선포로 이어졌고, 16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저희 사역지 임)

또 한가지는 전 훈센 총리와 태국 전 탁신 총리의 딸과의 전화 통화를 캄보디아 전 훈센 총리가 녹음한 것을 80명의 캄보디아 지도자들에게 오픈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와 전쟁으로 격화되었습니다. 태국 군부의 분노는 계엄령 선포에 이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포와 미사일을 쏘기 시작한 것은 7월24일에서 26일까지 밤이고 낮이고 대포와 총성으로 수많은 인파들이 피난 길에 올랐습니다. 저희 가정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주민들을 살피고 쌀과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캄보디아를 위해 저희 사역지 "쁘레아 위히어"를 위해 쌀과 물, 식량을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두 나라의 정치와 이권 싸움에 불쌍한 주민들만 고생입니다. 특별헌금을 부탁드립니다,

김 동순 하나은행 465-910143-75107 입금하신 후 교회명과 성함을 밝혀 주세요.